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from 00:00 to 24:00.



‘어(漁)벤져스’ 신안 만재도로 출격

‘삼시세끼-어촌편’ 차승원·유해진·장근석 출연...16일 첫 방영

서울에서 목포까지 자동차로 5시간 달린다. 다시 목포에서 배로 갈아탄 다음 서남쪽으로 6시간을 가야 닿는 곳이 바로 물과 너무 멀어 ‘먼데섬’으로도 불린다는 만재도다. 이 곳 주민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지명유래집에 따르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덕에 만재도(晩才島)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먹을거리들이 지천으로 깔린 섬이기도 하다.

는 상황에서 따뜻한 한 끼를 차려 먹는 보람이 있는 프로그램이죠.” 나 PD는 수많은 어촌 중에서도 굳이 만재도를 택한 데 대해 “외딴 섬에 고립된 3명이 기대하고 의지할 곳은 서로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정보보다 더 응축된 생활의 재미나 맛을 느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작년 하반기 순간시청률 10%를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며 파란을 일으킨 나영석 PD의 방송 예능 ‘삼시세끼’ 변이편이라는 점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다 강원도 정선을 배경으로 했던 농촌편의 이서진·옥택연보다 화려한 주인공들이 어촌편에 등장한다. 45살 동갑내기인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 장근석(27)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보여준다. 현재 계획된 분량의 2/3 정도 촬영을 마쳤으며 10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이날 맛보기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승마’(차승원과 아줌마를 합한 말)라는 별명을 얻게 된 차승원의 주부 9단 변신이 눈길을 끌었다. 영화 ‘이장과 군수’(2007)에서 차승원과 호흡을 맞췄던 유해진은 만재도 원주민 같은 느낌으로 등장한다. 유해진은 “원래 캠핑을 좋아해서 불 피우는 일에 익숙한데도 바닷가에 세계 부는데다 장작 안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고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시대 미화 아닌 아버지에 대한 헌사”

윤재균 감독 ‘국제시장’...올 첫 ‘천만 영화’ 눈앞

윤재균(사진) 감독이 5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영화 ‘국제시장’이 ‘천만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개봉 25일째인 지난 10일 누적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한 ‘국제시장’은 개봉 첫날을 제외하고는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몰이 중이어서 이대로라면 수일 내로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될 전망이다. ‘국제시장’이 누적관객수 1000만명을 넘으면 윤 감독은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천만 영화’를 두 편 탄생시킨 감독이 된다. 앞서 지난 2009년 선보인 ‘해운대’는 1145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전화로 만난 윤 감독의 목소리는 생각만큼 밝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헌사”로 만든 영화 ‘국제시장’을 놓고 과거사에 대한 미화라는 지적이 일면서 이번엔 낡가지 불거진 탓이다. “영화를 만들 때는 소통과 화합을 염두에 뒀는데 막상 개봉 하니 소통과 화합은커녕 논란과 갈등이 생기고 좌우, 진보와 보수 등 나라가 양분으로 나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 감독은 “영화를 만든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정치적 인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서 처음에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답을 찾았어요. 이게 영화 아니겠느냐는 거죠.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만든 사람의 의도와 보는 사람의 해석은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해서 만든 사람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어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윤 감독은 “부모 세대의 고생한 얘기에 초점을 맞춰 영화를 만들다 보니 영화에서는 정치적,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빠졌다”면서 “그 시대를 미화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화 속에서 논쟁을 불러온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 덕수(황정민)와 아내 영자(김윤진)가 한자리에 앉아 말다툼하다 애국가 소리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은 “다들 시킨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윤 감독의 설명이다. “그 장면이 그렇게 이슈가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풍자나 애국을 강조한 거나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전 둘 다 맞다고 생



각합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장면은 극에 달한 부분간의 갈등을 짧은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풀고 편하게 해소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넣은 거였어요. 당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으니까요. 편안하게 찍었던 신이었는데...” 베트남전 참전 군용 ‘영웅’으로 미화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역지사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홍남 철수’ 때 연합군이 한국에 도움을 준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사실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운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아요? 베트남전 참전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는 이어 “서로 인정하고 조금 이해하면 갈등하고 싸우기 보다 화합점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람들이 보다 유익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하튼 영화를 둘러싼 이번 논쟁이 흥행 열기에 불을 지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 감독은 이를 두고 “아이러니”라고 했다. “그런 논쟁이 제게 큰 상처를 줬는데 제가 생각해도 논란이 영화의 흥행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흥행 면에서 보면 대형인 거고 영화를 만든 의도 면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윤 감독은 “‘해운대’가 철저히 상업적인 계획에 의해 출발했다면 ‘국제시장’은 아버지에 대한 헌사로 출발해 이번에는 진짜 흥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숫자가 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 ‘국제시장’과 관련된 모든 분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쁘고 흥분된다기보다 정말 감사한 느낌입니다.” 윤 감독은 “앞으로 작품이든 사람이든 더 겸손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Table with 2 columns: Animal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for January 12th (Monday).